

현재가 과거를 만들수있다

10 학년의 남자아이가 2 년전의 한가지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확 바꾸어버렸다. 무엇에든지 의욕적이고 무엇에든지 열심이어서 그것을 뒷바침하며 따라가는 엄마의 속도가 아이의 열정과 의욕에 미치지 못할정도 였으며 책임감 또한 의심할필요없다 여기던 그런 아이였다. 그러던 아이가 무엇에도 열정을 내지 못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으며 이젠 학교가는것조차 힘겨워하는 아이가 되어 자신은 물론 가정이 이로인해 날마다 고통을 겪는것을 본다. 또한 케이스는 9 학년 아이가 엄마와 아빠와의 불화의 관계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영아기, 유년기를 겪어야했던 아이가 어린 3,4 세 아이로서는 쉽게 할수없는 행동과 머리쓰므로 인해 친척들에게 구박아닌 구박덩이가 되었던 그래서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익숙하고 쉬어진 아이가 되어 다시 엄마와의 합쳐진 생활속에서 청소년기 고통속에 있는 가족들을 본다.세번째 케이스도 역시 9 학년 아이의 경우로 엄마아빠와의 불화속에서 어린나이에 겪지못할 큰상처의 기억이 있어 또다시 엄마가 자신을 버려두고 떠날까 하는 불안감속에 사춘기에 들어선 이 아이는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마음과 불안감으로인해 청소년문제를 야기해 가정의 위기를 만들수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이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모든 상담케이스가 아프고 힘든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가진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다. 기억조차 하기싫은.....그래서 “만약 그때 그일만 없었다면, 만약 우리가정이 이렇지만 았았다면”의 가정을 만들어”내가 현재 이런것은 그것때문이야”라는 말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런 현재를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부정적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긍정적이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선 가치있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의 세가지의 경우에도 첫째, 둘째의 경우는 아직도 그 아픔과 상처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현재의 삶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위기의 삶을 살고있지만 세번째 경우는 자신의 과거에 매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과 계획을 가진 밝고 긍정적인 현재의

삶의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준다.” 세상의 밝은 면을 보게되어서 감사하다”며 말이다. 왜 이렇게 같은 불행한 과거가 있음에도 오늘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까? 여러가지 이유로 설명할수있겠지만 단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와 미래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수있다. 실례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치료를 살펴보면 되돌이킬수없는 이과거로 인해서 더이상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 과거를 의식적으로 다시 이해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 재통합 할것을 목표로 삼고있는것을 말하는데... 에른스트블르흐는 프로이드가 인간의 과거를 과대평가했다라는 비판을 하며, 인간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순서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미래가 우선시된다고 주장했다. 즉 샤프트르가 말한것과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자체로는 알기힘들고 내가 되기를 바라지만 아직 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고려함으로서만 정의 할수있다라고 말이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미래에대한 품은 꿈과 계획(소망)이 과거의 진로를 결정, 즉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할수있다라는것이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과거를 가지고 괴로움으로 일그러진 삶을 사는 현재를 보면서 고통의 과거때문에 이들은 보지못하는 소망을 보는 사람으로서 계속 그들의 마음에 이야기하며 이들을 일깨우는 외로운 행진을 하는 내 자신을 본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으로서 과거의 내용을 바꿀수는 전혀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품는 자세를 갖는다고하면 그아픔의 과거는 더이상 아픔만이 아닌 꿈을 잉태하고 만들어 가기위한 무엇이엇음을 깨달을수있다는것을 말하며 말이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되돌이킬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품은 미래(소망)에 따라 과거의 의미나 가치는 얼마든지 바꾸어 질수있는것이다. 그러기에 블르흐는 미래가 과거를 이끈다라고 까지 표현할수있었것같다. 만약 내가 단지 나의 과거의 총합이다라는 생각을 인정한 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완전히 결정되어버린것이다. 임종의 순간 즉 미래가 없는 순간에서만이 우리는 완전히 자신의 과거에의해 결정될수있지만, 그러나 단하루라도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는 순간 만큼은 과거의 의미나 가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것이다 현재에 미래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소망)에

의해서... 삶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길 원한다. 그러기에 새롭게 시작할수있는 미래의 시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것이다. 그 시작의 그림의 붓대는 내손에 쥐어져있으며 그손은 또한 우리의 원함으로 인해 창조주께서 함께 붙들고 계신것이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절망과 함께 사는 모든이에게 미래의 꿈과 계획(소망)을 품는 현재는 바로 축복이다 세번째 경우의 예쁜 그소녀와 같이



(월드비전에서 불우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을 정리하며)



(청소년 건전한 문화토양을 위한 “유스갤러리아”)